

Mirizzi syndrome과 유사한 기종성 담낭염에 동반된 담낭암 1례
안양병원 내과 이나라*, 전승민, 이종섭, 손주익, 이체영

서론: Mirizzi syndrome이란 1948년 mirizzi가 정의한 것으로 담낭경이나 담낭관에 담석이 끼어 총수담관을 바깥에서 눌러 담관을 막거나, 총수담관에 누관을 형성하기도 하는 담석증의 드문 합병증이다. Mirizzi syndrome의 경우에 담낭암의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여러 문헌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 바이다. 저자들은 Mirizzi syndrome에 동반된 담낭암과 유사한 기종성 담낭염에 동반된 담낭암 1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77세 남자환자가 내원 당일 아침 식후부터 시작된 복통 및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체온은 36.5℃며 급성 병색을 보였고, 공막은 황달소견 보이지 않았다. 복부의 심와부 및 우측 상복부에 압통이 있었으며, 반발통은 없었다. 혈액검사상 백혈구치는 11,300 /mm³, 헤모글로빈 13.4 g/dL, 혈소판 229,000 /mm³였다. 혈청 생화학 검사상 BUN/크레아티닌 12/0.9 mg/dL, 총혈청단백/ 알부민 7.8/4.6 g/dL, 총콜레스테롤 241 mg/dL, 총빌리루빈 1.4 mg/dL, AST/ ALT 128/58 IU/L, alkaline phosphatase 105 IU/L, amylase/ lipase 1911/17626 IU/L였다. 복부 초음파상 간내 담관의 확장 및 담낭이 커져 있으나, 담석이나 담낭벽의 두께 증가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복부 컴퓨터 촬영상 간내 담관 및 총담관이 확장되어 있으나, 명확한 폐쇄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담낭이 확장되어 있으나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지는 않았다. 내원 2일째 간헐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amylase / lipase는 896/ 17752 IU/L, LDH 278 IU/L, AST/ ALT 2183/ 1193 IU/L, 총빌리루빈 2.9 mg/dL였다. 내원 3일째 체온이 38℃로 상승하였으며 담낭염에 준한 항생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날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 채장 조영술에서 간내 담관은 확장되어 있었으며, 담낭이 많이 늘어나서 총수담관을 누르고 있었다. 총수담관의 말단 부위 및 채관에 담석이나 종양 등은 보이지 않았으나, 팽대부구가 열려있고, 유두염이 동반되어 있어 이곳으로 담석이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이 되었다. 담낭내에는 담낭벽을 따라 가스가 보였으며, 급성 기종성 담낭염 의심하에 내원 4일째 일반 외과로 전과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담낭 제거후 담낭 기저부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병리 조직 검사 결과에서 선암으로 밝혀졌다.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동반된 담낭암 1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내과

남지선, 김철식, 이세준

말단비대증은 성장호르몬 및 IGF-I의 과도한 분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신적인 내분비질환이다. 말단비대증 환자는 증가된 성장호르몬 및 IGF-I의 성장촉진작용으로 인하여 악성종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저자들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말단비대증 환자에게서 동반한 담낭암 1예를 경험하고 이 가능한 연관성의 두 질환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46세 여자가 5년 전 말단비대증을 진단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던 중 1주일 전부터 발생한 황달 및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7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며 폐결핵, 간염, 당뇨의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환자는 두통, 시야장애, 유즙분비, 발한과다, 우상복통을 호소하였다. 혈압 170/100 mmHg, 맥박 80 회/분. 체온 36.8℃ 이었고 피부는 노랗고 따뜻하였고 안와상연이 뚜렷하였고 하악골은 크고 돌출되었다. 흉부의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복부진찰 상 간이 3횡지 정도 만져졌고 우상복부 압통이 있었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커져 있었다. 간기능검사 상 폐색성 황달소견을 보였고 GH는 109.0 ng/mL, IGF-I은 754.4 ng/mL로 증가되었다. sella MRI 상 우측 해면정맥동을 침범한 3×2.5 cm 크기의 뇌하수체 종괴가 발견되었고 복부전산화촬영 상 담낭 부위에 5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담도, 간문 부위에 침범이 있었고 간내 담관이 확장되어 있었다.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과 진행된 담낭암으로 진단하고 경피적 담관배액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담즙 세포병리 검사에서 선암으로 판정되었다. 입원 28일째부터 5-fluorouracil 1,500mg, cisplatin 100mg으로 주기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며 뇌하수체 거대선종에 대해서는 octreotide 300 µg을 경피적으로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외래관찰 중이다.